

코로나19에 맞춰 진화하는 '스미싱'

〈문자 메시지 이용한 사기〉

백신 접종·재난 지원금 등
행정문자 이용 개인정보 빼내
광주·전남 올해 45건 발생
출처 불분명 사이트 주소 문자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질병관리청]코로나19 디지털 예방
접종증명서의 발급 및 저장 본인확인
<https://ya.mba/3Pq>

[Web발신]
여분백신 화이자 예약안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을
확인하세요
<https://url.kr/fn8oeq>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을 파고든 스미싱 문자.

코로나 사태가 겹치자 스미싱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쓰던 앱의 할인 쿠폰 혹은 지인에게 온 축하 문자에 링크가 걸려있는 문자가 오는 방식으로 변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자 암호화폐거래소를 사칭하는 방법까지 동원됐다.

근래들어서는 질병관리청을 사칭하는 등 코로나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무작위로 전송되고 있다.

8월 초에는 재난 지원금 관련해 "5차 재난지원금이 신청됐습니다"의 내용과 URL이 담긴 스미싱이 기승을 부려 정부가 사이버위 기 "관심"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여분 백신예약 안내(여분 화이자 백신 접종예약 하십시오 등) 시기에는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대거 유포됐다. 백신이 확보돼 접종이 원활한 때에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의 스미싱으로 변신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 앱(COOV)과 똑같은 가짜 앱 설치 화면이 나온다. 앱을 실행해 접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촬영한 뒤 은행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안내에 따라 입력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범죄조직에 넘어가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가 담긴 문자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 특히 방역당국이 전화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바로 의심해야 한다"면서 "질병청에서 보내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의 전화번호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능 코 앞... 확진자 확산에 학부모 불안 ▶6면

KIA 낙점 김도영 "개막전 톱타자 목표" ▶18면

新 전남임 - 임자마을 흥반장 강산울씨 ▶22면



제12호 태풍 '오마이'가 남부지방에 상륙한 24일 새벽 여주시 국동항 인근 도로 일부 구간에 빗물이 고여 있다.

/연합뉴스

태풍 비껴간 광주·전남...최대 80mm 큰 비 예보

해상, 돌풍·천둥에 너울까지
'가을 장마' 9월 초까지 계속

광주·전남지역은 올 여름 첫 태풍에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광주·전남은 태풍 이후 곳에 따라 최대 80mm의 큰비가 예보돼 긴장을 늦추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다음달 초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일 새벽에 전남해안부터 시작된 비가 오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일 낮부터 밤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며,

26일 새벽까지 최대 8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25일 전 해상, 26일 남해서부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다음 달 초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로 인한 피해상황은 접수되지 않았다. 반면, 전남은 태풍의 길목이었던 전남 동부권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상가, 주택 등 침수 피해가 나는 데 그친 것으로 잠정조사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진

여수에서는 교통시장 상가와 주택 침수 8건, 하수역류 3건 등 1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담양에 선창고 1건, 고흥에선 식당 1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태풍 피해 상황 보고회를 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면서, 수산 양식시설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 발생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태풍 상륙에 앞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주민 1502가구 1930명을 사전에 안전한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 피해 발생 제로(0)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광주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내년 604.7조 + α '슈퍼 예산' 편성

소상공인 보상 1조8000억 추가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는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규모 604조 7000억원을 웃도는 액수로,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본 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량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중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

8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산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에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하기로 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원~20만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봉급을 대폭 올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메타그린 골드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오셀룰로스의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